

주일 낮 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4:24)

| 오전 9:00 | | 오전 11:00 | 인도 / 김동오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 경배찬송 **다함께**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ccm)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기도 | 송수진집사 | 신재희장로

성경봉독 **인도자**

요한복음 10:11-18

찬양 | 왕 되신 주 앞에 **교사중창단**

|| 반석 위에 서리 **호산나찬양대**

설교 **김동오목사**

"선한 목자 예수님"

기도 **다함께**

봉헌 **다함께**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회기도 **설교자**

■ 결단의찬양 **다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ccm)

■ 축도 **설교자**

■ 경건한 마음의 표시로 일어섭니다. ■ 다음기도 / I. 선상이집사

■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II. 김한수장로

■ 4월 28일 / 시 22:25-31, 행 8:26-40, 요일 4:7-21, 요 15:1-8

주일 오후 찬양예배

오후 2:00 **제 4남전도회 헌신예배** 인도 / 김현영집사

경배와찬양 (인도) **믿음으로찬양단**

기도 **임윤구집사**

성경봉독 요한일서 3:16-18 **조승현집사**

찬양 주가 일하시네 **4남전회원**

설교 "믿음과 사랑의 계명" **김동오목사**

기도 **다함께**

찬송 218.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축도 **설교자**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인도 / 김동오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코람데오찬양단**

기도 **이혜원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4:23-37 **인도자**

찬양 **자원자**

설교 "행9, 아름다운 교제와 기도의 공동체" **김동오목사**

기도 **다함께**

찬송 220.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함께**

축도 **설교자**

□ 다음기도 / 강은숙권사

새벽기도회

새벽 5:00 인도 / 김동오목사

· 월 22일 열왕기상 8:41-53 온 마음으로 들어갈 때 금홍과 은혜를 베푸소서

· 화 23일 열왕기상 8:54-66 순종을 다짐한 기쁨의 봉헌식

· 수 24일 열왕기상 9:1-9 건고한 왕위를 영원히 누리는 비결

· 목 25일 열왕기상 9:10-28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왕국의 번영

· 금 26일 열왕기상 10:1-13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중인

· 토 27일 열왕기상 10:14-29 하나님 약속으로 누리는 부와 명성

· 일 28일 열왕기상 11:1-13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지도자의 결말

* 새벽기도회 묵상 말씀은 Q.T 교재 <생명의 삶>(두란노) 해당 날짜 본문과 같습니다.

설교 요약

"선한 목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11.14)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사편23편) 예수님도 그 맥락과 같이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양'이라고 인정하고 사느냐입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은 목자를 향한 양의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 1) 목숨을 버리는 목자(11)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이 늑대나 이리의 공격을 받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목자 중에는 샅꾼도 있습니다. 그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양을 돌보기에 양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해내지는 않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일치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 2) 양을 아는 목자(14, 15)
양을 안다고 할 때 '안다'(기노스코)는 단어는 상대방을 아주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 즉 우리가 바로 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면 목자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도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가깝게 느끼는 차원입니다. 이 두 차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예수님 자체에 알려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신앙의 공백 상태에 떨어집니다. 양이 목자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경험합니다.

- 3) 선한 목자 /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창세기1:12, 19, 21, 25, 31)고하신 말씀과 통합니다. 우리는 좋거나 선하다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익하다고 하는 판단은 옳습니까? 우리의 인식능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의 인식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는 말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10).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양들에게 생명을 넘치게 연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등록 교우**
 №07. 정대영집사(4남전/49구역/안유정집사인도) - 태장1동 칸타빌apt
 №08. 양수현집사(7여전/35구역/안유정집사인도) - 태장1동 칸타빌apt
 №09. 정지우어린이(어린이) - 태장1동 칸타빌apt
 №10. 정정우어린이(어린이) - 태장1동 칸타빌apt
- 제4남전도회 헌신예배 : 4월 21일(주일) 오후예배시
 - 찬양연습 : 4월 21일(주일) 2부예배 직후, 대예배실(3층)
- 금요저녁기도회 : 4월 26일(금) 오후 8시, 대예배실(3층)
- 봄 심방 일정 : 4월 26일(금) 15구역 4월 27일(토) 22구역
- 제자훈련 14기 훈련생 모집 : 4월 21일(주일) 접수 마감
- 성경거버리폼 : 4월 28일(주일)까지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조
- 지역전도 : 매주 토요일 오전 10:50, 2층 소예배실에서 출발
 - 문의 : 선상이 집사(전도팀장)
- 공동식사 쌀 대접 : 송경수 사공수인집사
- 공동식사 떡 대접 : 전명진 김영경집사 - 아들 민석 결혼 감사

▣ 성경 및 헌금 계좌 안내

- 태장성결교회 공식 성경은 [새번역성경]입니다.
 성경 찬송 구입 원하시는 분은 예배부장 신동희권사께 문의하세요.
- 헌금 계좌번호
 입일조,감사,건축 / 농협 213-01-166145, 태장성결교회
 예, 입일조-000십, 감사헌금-000감, 건축헌금-000건, 주일헌금-000주

▣ 목회계획

4.21-27	4.28-5.4	5.5-11	5.12-18
22-24. 서울신대 동문대회	4.28. 제자훈련 수료식 청년연합예배 5.3. 코칭넷(태장)	5. 가족주일 (어린이,어버이)	12. 2여전 헌신예배 14. DPA (on-line) 18. 어린이 꽃 잔치

▣ 봉사위원

구분	4.21	4.28	5.5	5.12
차량 운행	1호 강병린	강대봉	이철성	강대봉
	2호 신재희		수요	교역자
주방	32,33,35구역	34,43,46구역	-	41,42,44구역
오후 돌봄	강은숙 김재욱	설수정 이춘득	-	김중순 김춘자
청소(화장실)	청소년	7여전	청년	8여전
봉헌	1부: 신동희	2부: 조선일 박하영		

▣ 우리 교회는!

1.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우기를 힘씁니다.
2.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위해 교회 프로그램 전반에서 가정을 배려합니다.
3. 지역사회와 더불어 숨쉬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월-토 오전 5:00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4금 오후 8: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포에버예배	목 오전 1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구역장교육	수 오전 5:30
주일 영유아예배	오전 11:00		수 오후 8:20
주일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제자훈련	금 오전 10:00
주일 청소년예배	오전 11:00	구역모임	구역별 별도시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00	주말교회청소	기관별 별도시간

▣ 태장성결교회 가는 길



시내버스 /
3, 4, 6, 7, 41, 42번
중앙아파트앞 하차

교회 버스 /
주일, 수, 목, 새벽예배
차량 운행시간표 참조

▣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 김동오
 명예 목사 : 채수환
 부담임 목사 : 김재중
 청소년간사 : 강호길
 선교사 : 황느헤미야 임에스터 (T국)
 박예덴 베들레헴 (M국)
 최용락 이민숙 (K국)
 박종민 이인덕 (T국)
 지영환 김희수 (V국)
 최경민 김은진 (G국)
- 사무장로 : 김인택 신재희 김한수
 원로장로 : 박병기
 명예장로 : 황호운 김성제
 은퇴장로 : 김정원
 찬양지휘 : 고재석
 반주 : 원신희 변찬미 사공수인
 신지혜 박예강 이하민 최은선
- 협력교회 : 강원코칭넷 강원칼넷 DPA
 서울신학대학교 아이행복마을
 원주북원노인종합복지관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 영동 주님의 주사랑
 주비전스토리 한우리

2024년 04월 21일
 (통권 제 52권 16호)
 교회설립 1973.5.27.
 부활절네번째 주일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혹시 '엄지장갑'을 아시나요?!

강대봉집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1981년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에 따라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공포하고, 그 해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44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성찰과 인식 개선을 하는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을 듯해서 글을 씁니다.

오래 전 모 방송사 앵커 브리핑을 보며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은 "혹시 여러분은 '엄지 장갑'을 아시나요?"라는 말이었 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회복지인으로서 그동안 생각 없이 불렀던 '병어 리장갑'이란 말이 언어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지 장갑'이란 표현은, 언어장애 어머니를 둔 20대 아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한 사람이라도 '병어리장갑'을 쓰지 않다 보면 언젠가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들이 사라 질 것이다"라고 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성경에는 '문둥이'를 '나병환자'로, '절뚝발이'를 '다리 저는 사람'으로, '병어리'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순화하여 표현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아직도 편견이 담긴 용어들입니다. 이를 공식명 칭인 '한센인',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개선하고 순화하는 근본 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 구역 여름방학 필독서로 함께 읽은 『소란스러운 동거』(박은영, IVP)는 조금 다른 몸으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여성 장애인의 이야기로 성도들에게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귀한 도서였고, 새로운 시선으로 장애를 보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구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것은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기 배려입니다. 그 래야 그것을 받는 이들의 일상의 삶도 한층 행복하고 나누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삶의 행복도 더 확산됩니다.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들어냄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지면관계상 부득이 제출하신 원고를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원문은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